

# 현안과 과제

■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 요약 >****1.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

- (성수대교 붕괴 20년) 10월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20년째 되는 날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도로, 다리,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인프라 고령화) 도로, 다리, 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현재 2,328개로 급증하고 있음
  -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 (안전의식 하락)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하고, 2007년의 30.3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
  -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

**2. 안전의식 실태 및 문제점**

- (안전의식 실천 실태)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67.5%), 비상구가 없거나 부실한 노래방에서 '그냥 이용한다'(81.9%)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시설물 안전수준 평가)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매우 저조하며,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안전 실습교육 실태)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 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경우도 31.1%에 달함
  - 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체의 31.7%에 달하며, 여성, 학생, 전업주부 등이 특히 취약함
- (교육훈련 필요성)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접 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경험자는 36.0%에 불과함
  -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한 교육훈련 횟수는 '6개월에 1회'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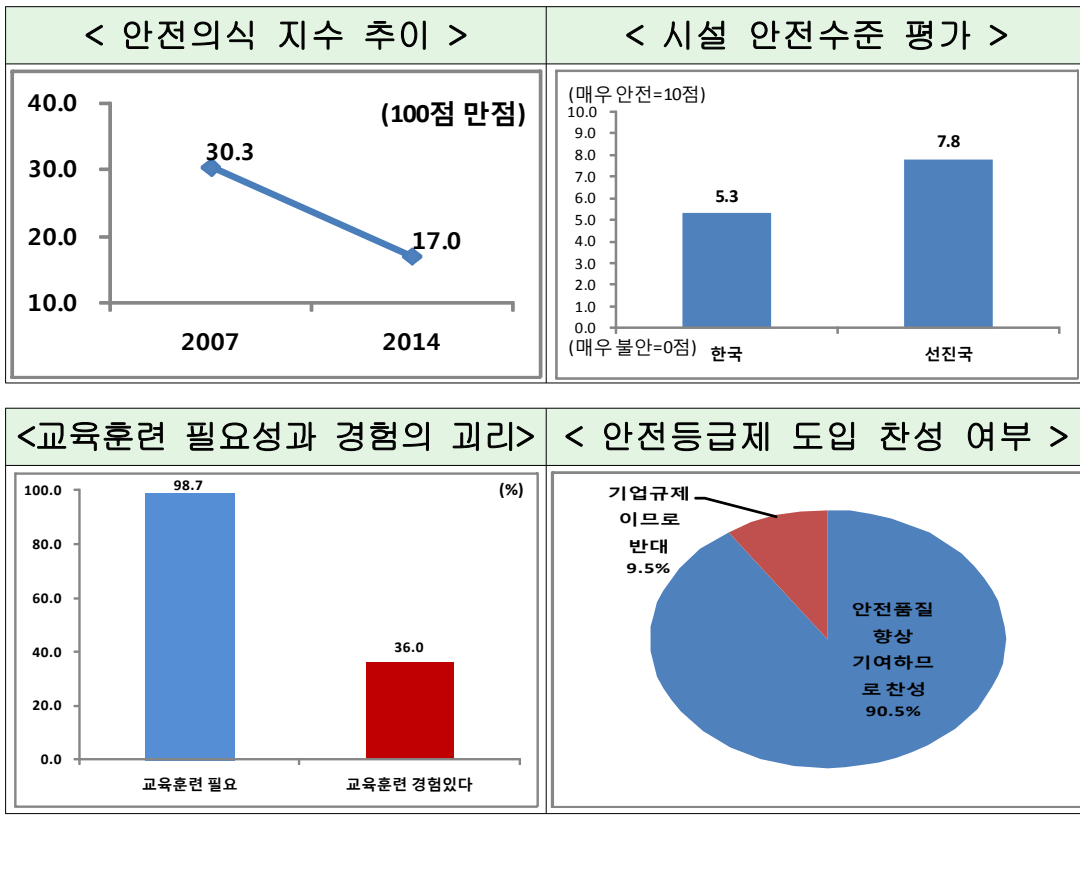
**3. 안전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

- (안전투자의 필요성) 우리 생활·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전체의 97.2%가 공감을 표시함

- (안전투자의 우선순위)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생활기반시설'(54.3%)이 '사회기반시설'(45.6%)보다 약간 높았으며,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학교'(75.4%),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는 '다리'(33.3%)와 '상하수도'(25.3%)의 우선순위가 높았음
- (안전투자 재원마련 방안) 안전관련 시설·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52.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이용자의 요금 인상'(26.3%), '국민 전체 대상의 세금 인상'(21.6%)의 順이었음
-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90.5%)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

####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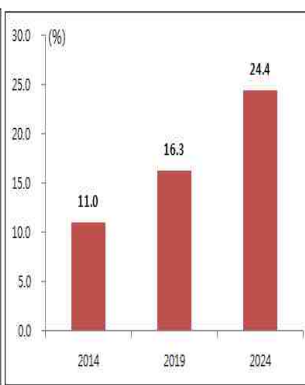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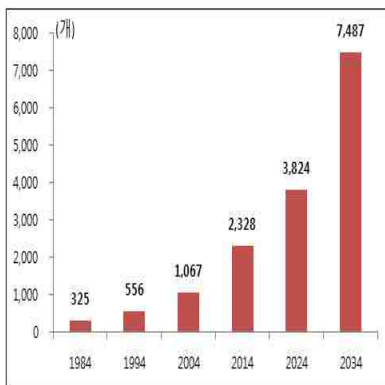
- 아직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20대,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전의식과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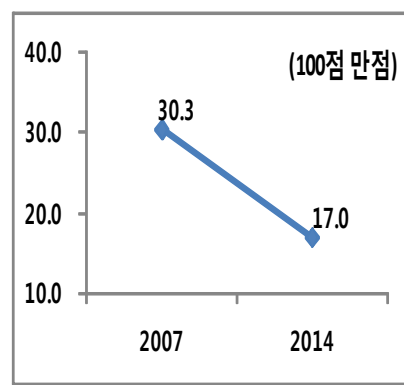
## 1.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

- (인프라 고령화)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숫자가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현재 2,328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30년 이상되어 고령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2,328개로 급증했으며, 향후에도 2024년 3,824개 2034년 7,487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인프라 고령화율<sup>1)</sup>’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은 2014년 11.0%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24.4%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전의식)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sup>2)</sup>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에 불과하며, 2007년의 30.3점보다 크게 하락
  -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 ‘별로 부족하지 않다’ 4.2%, ‘전혀 부족하지 않다’ 0.8%로서 전체의 95%가 ‘부족하다’고 응답
  - 매우 부족=0점, 다소 부족=0.3점, 별로 부족 않음=0.7점, 전혀 부족 않음=1점으로 지수화한 결과 17점<sup>3)</sup>으로서 2007년의 30.3점<sup>4)</sup>에 비해 크게 하락

< 30년 경과 시설물 추이 > < 인프라 고령화율 >



< 안전의식지수 >



자료: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자료: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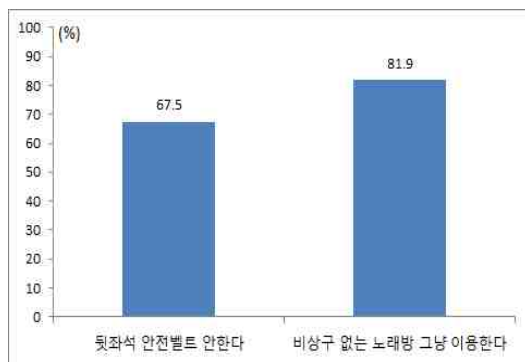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 현대경제연구원(2013), ‘인프라 고령화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경제주평 2013.4.26, 참조.  
 2)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8월초에 실시한 ‘국민안전의식’ 관련 전화 설문조사 결과.  
 3) ‘안전의식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해석.  
 4)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2007년 ‘안전의식조사’ 결과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수화한 결과.

## 2.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 실태<sup>5)</sup>

- (안전의식 실천 실태)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67.5%),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한 노래방도 ‘그냥 이용’(81.9%)하는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큰 문제임
  - “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안전벨트 안하고 간다’가 67.5%, ‘안전벨트를 한다’가 32.5%로서 3명 중 2명은 위험한 상태로 자동차를 탑승하고 있음
  - 20대의 74.6%, 학생의 73.4%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자영업자(72.1%)와 블루칼라(71.7%)도 상대적으로 안전의식이 미흡함
  - “노래방의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해 보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 이용한다’가 81.9%, ‘다른 노래방으로 간다’가 18.1%로서 4명 중 3명은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 20대의 86.6%, 학생의 92.4%가 ‘그냥 이용한다’고 답변하여 젊은 학생들이 안전의식이 가장 미흡
- (5년 前과 비교)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5년 전과 ‘똑같다’는 응답이 65%에 달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안전의식이 5년 전에 비해 변화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똑같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17.5%)와 ‘개선되었다’(17.2%)는 비슷함
  - ‘나빠졌다’는 응답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그룹은 ‘여성’, ‘50대’, ‘자영업자’, ‘전업주부’, ‘고졸’, ‘年2천만 원 미만 소득계층’ 등이었음

< 안전의식 미흡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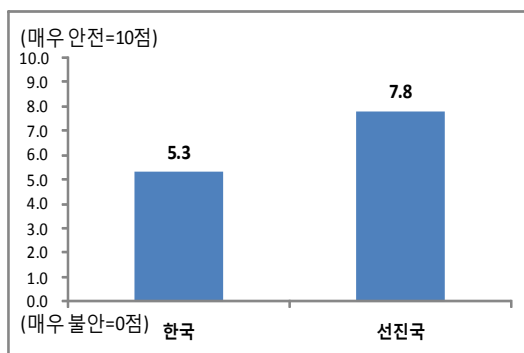
< 안전의식 5년 전과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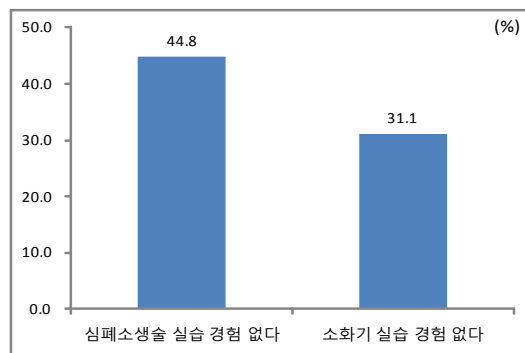
5) 이하 조사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임.

- (시설물 안전수준 평가)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이며,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참고로, 매우 불안하다 0점, 매우 안전하다 10점으로 할 경우)라는 질문의 답을 합쳐 보니 평균 5.3점이 도출됨
    - ‘5-6점’ 사이에 56.6%가 위치해 있었으며, 남성(5.5점)에 비해 여성(5.2점)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5.1점)가 가장 낮음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의 답을 합쳐 보니 평균 7.8점이 도출됨
    - 우리나라의 안전수준(5.3점)은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안전 실습교육 실태)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5%에 달하며, 소화기 사용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31.1%에 달함
  -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55.2%, ‘없다’ 44.8%로서 2명 중 1명 정도는 전혀 경험이 없음
    -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룹은 ‘여성’, ‘고령층’, ‘전업주부’, ‘자영업자’, ‘年소득 2천만원 미만’, ‘고졸이하’,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남
  - “지금까지 소화기 사용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68.9%, ‘없다’ 31.1%로서 10명 중 3명은 전혀 경험이 없음
    - 소화기 실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룹은 ‘여성’, ‘고령층’, ‘전업주부’, ‘자영업자’, ‘年소득 2천만원 미만’, ‘고졸이하’, ‘수도권 거주자’로 위와 동일함

< 시설 안전수준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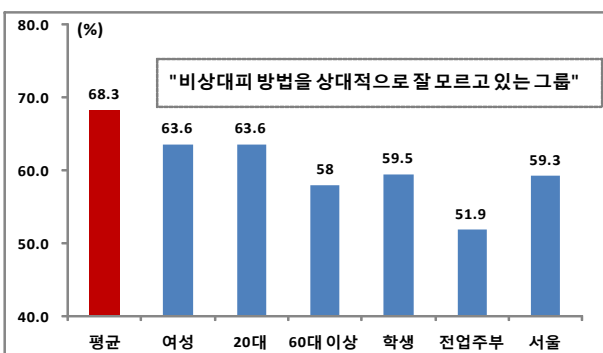


< 안전 실습교육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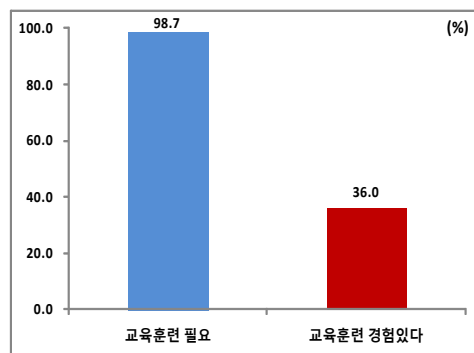


- (비상대피 능력) 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전체의 31.7%에 달하며, 특히 여성, 학생, 전업주부 등의 비상대피 능력이 취약함
  - “귀하께서 생활하시는 아파트, 직장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방법을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8.3%, ‘잘 모른다’ 29.0%, ‘전혀 모른다’ 2.7%로서 전체의 31.7%가 비상대피 능력이 부족함
  - 비상대피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룹은 ‘여성’, ‘20대’, ‘60대 이상’, ‘학생’, ‘전업주부’, ‘서울 거주자’ 등이었음
- (교육·훈련 필요성)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98.7%)가 공감하고 있음
  - “귀하께서는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75.9%로 압도적이었으며, ‘필요한 편이다’ 22.8%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8.7%가 필요성에 공감
  - ‘별로 필요 없다’(1.0%)와 ‘전혀 필요 없다’(0.3%)는 응답은 매우 미미함
  -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화이트칼라’, ‘고소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훈련 경험)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4.0%에 달함
  -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훈련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가 64.0%, 1회 이상 ‘직접 참여한 적 있다’는 36.0%에 불과
  -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여성’, ‘60대 이상’, ‘학생’, ‘자영업자’, ‘전업주부’, ‘고소득층’ 등에서 높게 나타남

<비상대피법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은 그룹>



<교육훈련 필요성과 경험의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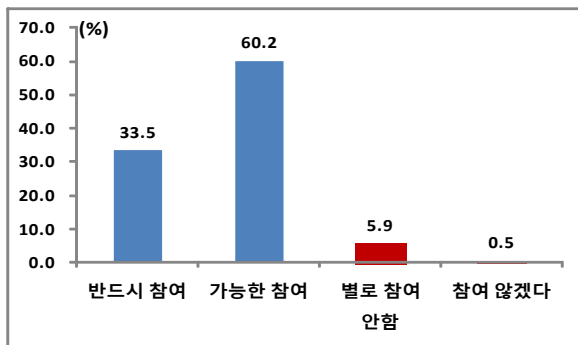
○ (교육훈련 참여 의사) 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서 매우 높게 나타남

- “귀하께서는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사고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참여 하겠다’ 33.5%, ‘가능한 참여 하겠다’ 60.2%로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93.6%에 달함
- ‘반드시 참여 하겠다’는 응답(33.5%)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룹은 ‘여성’과 ‘5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음
- ‘학생’의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가 12.7%로 평균(6.4%)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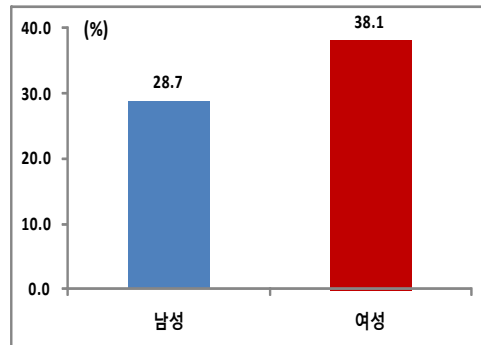
○ (교육훈련 참여 횟수) 안전 관련 교육훈련으로서 적당한 횟수는 ‘6개월에 1회’라는 응답이 39.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귀하께서 만약 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6개월에 1회’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개월에 1회’ 33.6%, ‘12개월에 1회’ 20.2%, ‘1개월에 1회’ 7.0%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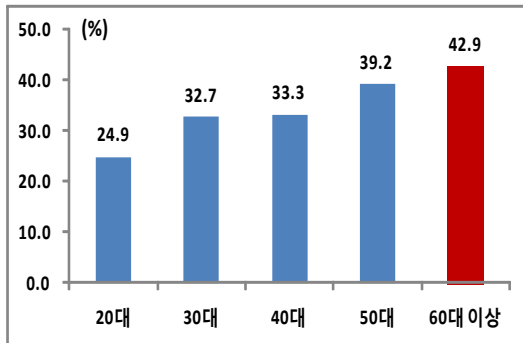
< 교육훈련 참여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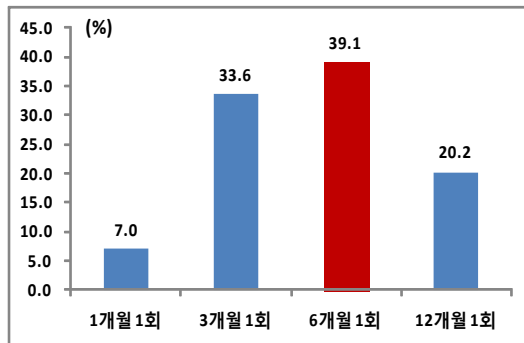
< ‘반드시 참여’ 성별 응답률 >



< ‘반드시 참여’ 연령별 응답률 >



< 적당한 교육훈련 횟수 >





### 3. 안전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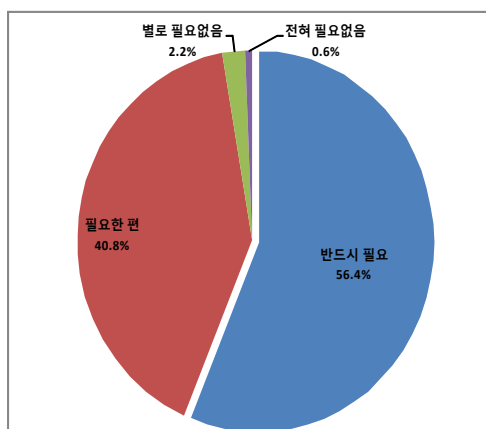
○ (안전투자의 필요성) 우리 생활·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7.2%가 공감을 표시

- “우리 주변의 건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56.4%, ‘필요한 편이다’ 40.8%로서, ‘필요하다’는 답변이 97.2%에 달함
- ‘별로 필요 없다’(2.2%)와 ‘전혀 필요 없다’(0.6%)는 응답은 매우 미미한 편임
- ‘반드시 필요하다’(56.4%)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여성’,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 ‘고학력층’, ‘서울지역 거주자’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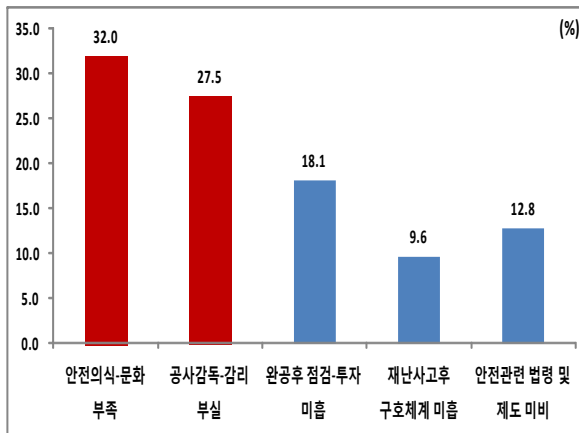
○ (‘안전한 나라’의 걸림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취약한 분야는 ‘안전의식과 문화의 미숙’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음

-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분야는 ‘안전의식과 문화의 미숙’(32.0%)이었으며, ‘공사 감독과 감리 부실’(27.5%), ‘완공이후 주기적 점검과 투자 미흡’(18.1%) 등의 순이었음
- 이어서,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12.8%), ‘재난 및 사고 이후의 구호 체계 미흡’(9.6%)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안전관련 의식과 문화의 미숙’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건설 공사에 대한 감독과 감리의 부실’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음

< 안전투자의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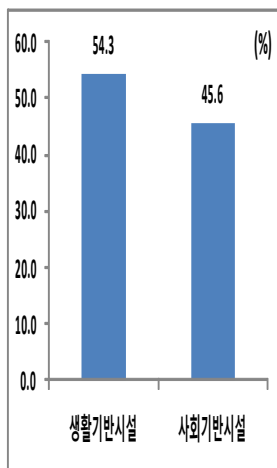


<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걸림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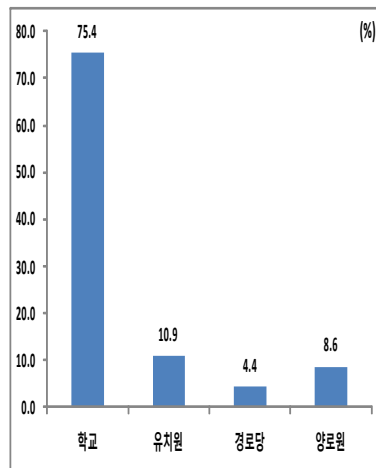


- (안전투자 우선순위)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생활기반시설(54.3%)이 사회기반시설(45.6%)보다 약간 높았고, 생활기반시설에서는 ‘학교’(75.4%)가, 사회기반시설에서는 ‘다리’(33.3%)와 ‘상하수도’(25.3%)가 높게 나타남
  - “건물과 시설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생활기반시설’(54.3%)이 ‘다리, 터널, 배수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45.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생활기반시설’(54.3%)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20대’와 ‘30대’, ‘학생’과 ‘블루칼라’ 등이었으며, ‘사회기반시설’(45.6%)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50대’와 ‘60대 이상’, ‘전업주부’ 등이었음
  - “생활기반시설 가운데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75.4%)라는 응답이 압도적임
    - 이어서 ‘유치원’(10.9%), ‘양로원’(8.6%), ‘경로당’(4.4%), ‘기타’(0.8%) 등의 순
    -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도 ‘학교’라는 응답(75.9%)이 평균을 상회함
  -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리’(33.3%)와 ‘상하수도’(25.3%), ‘발전소’(20.4%)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어서 ‘터널’(10.3%), ‘철교’(6.4%), ‘저수지’(3.5%), ‘기타’(0.9%)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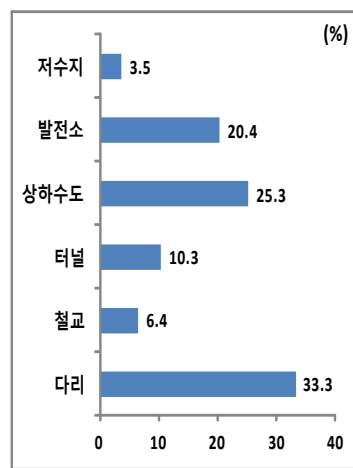
<안전투자 우선순위>



<생활기반시설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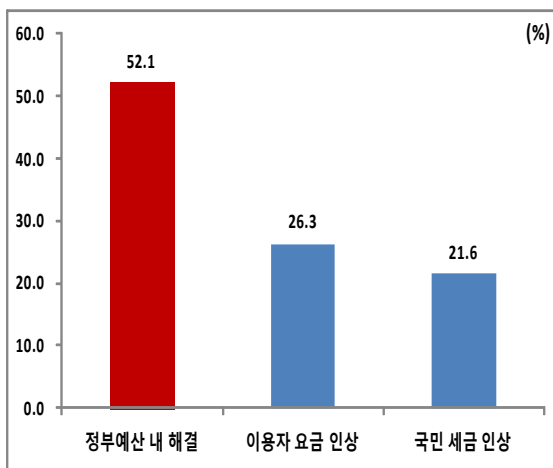


<사회기반시설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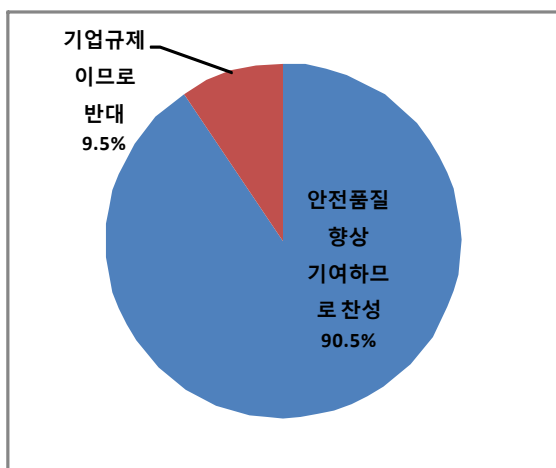


- (투자재원의 마련 방안) 안전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52.1%), ‘요금 인상’(26.3%), ‘세금 인상’(21.6%) 등의 순으로 답변하여, 추가적 세금 인상에는 거부감이 있음
  - “안전관련 시설, 제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세금이나 요금 인상 없이 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52.1%)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함
    - 이어서, ‘이용자의 요금 인상’(26.3%), ‘국민 전체 세금 인상’(21.6%)의 순
    - 결국,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상에는 거부감이 있으며, 최후의 방안임
  
-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90.5%)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답변
  - “귀하께서는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안전품질 향상에 도움 되므로 찬성’(90.5%)이라는 응답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반대’(9.5%)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즉, 안전등급제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장치’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특히, 가구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구매 결정권이 강한 ‘전업주부’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97.7%로서 평균(90.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

<안전관련 자원마련 방안>



<안전등급제 도입>



#### 4. 시사점

- (안전 관련 국민인식)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대, 학생,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안전의식과 실습교육이 특히 부족한 계층은 연령별로는 '20대'였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20대와 학생, 전업주부 등은 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다만, 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전체의 98.7%가 공감하고 있고,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93.6%로 나타난 점은 그나마 다행임
- (안전 관련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 안전투자는 다리,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보다는 학교, 양로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더 시급하며,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학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함
  - 안전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안전의식과 문화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투자비용의 수용성) 안전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은 '현재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서,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안전등급제의 도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경제연구본부 정책연구실장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별첨> 조사 개요 및 샘플 구성

1. 조사 시기 : 2014년 8월5일~9일(5일간)
2. 조사 방법 : 전화 설문조사
3.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4. 허용오차 :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
5. 샘플의 구성 (아래 표 참조)

단위: 명, %)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학생	전업주부	농림어업	무직기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498	506	209	248	264	171	112	457	145	111	79	132	9	67	39	224	662	63	1,004
49.6	50.4	20.8	24.7	26.3	17.0	11.2	45.7	14.5	11.1	7.9	13.2	0.9	6.7	3.9	22.7	67.0	6.4	100